

# Eugene's FIIC Update (2023.2.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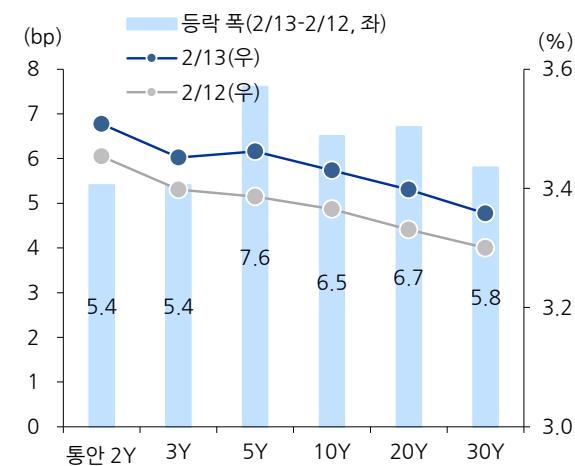

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\_02)368-6176\_jhoonlee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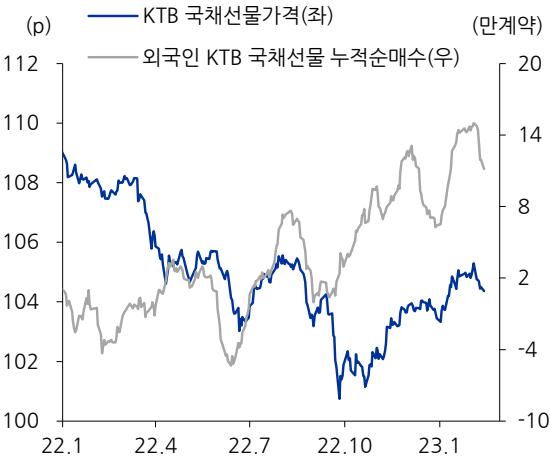
## Fixed Income

		2/1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452%	5.4	16.9	-27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430%	6.5	14.7	-30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-2.2	-3.3	0.0	0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36	-14.0	-39.0	91
	10년 국채선물(LKTB)	112.98	-53.0	-115.0	303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537%	3.0	5.8	11.7
	미국채 10년물	3.703%	-3.2	6.1	-17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-83.3	-77.1	-83.6	-54.2
	독일국채 10년물	2.367%	0.4	7.5	-19.8
	호주국채 10년물	3.761%	5.6	29.7	-29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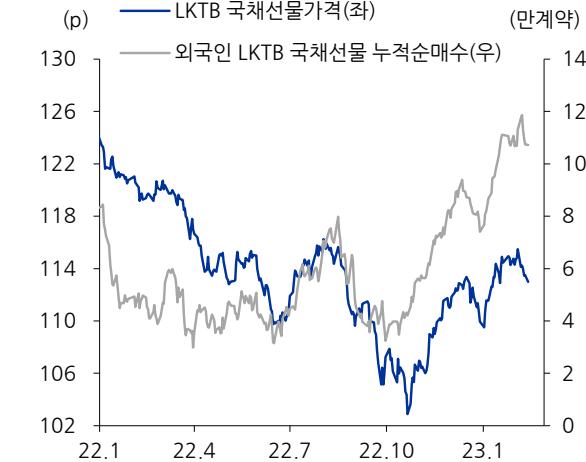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 커지면서 투자심리 위축.
- 전일 미국 소비자태도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 및 긴축 우려가 계속 높지며 금리 상승 출발.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와 원/달러 환율 상승도 금리에 우호적이지 못했음.
- 국고 3년 입찰은 최근 높아진 금리 탓에 다소 강하게 입찰됐지만 시장 금리의 방향성을 바꾸긴 부족했음.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플래트닝 마감. 장단기 방향성 엇갈림. 긴축 우려 여전히 단기금리 상승세는 이어졌음.
- 월가에서는 1월 CPI에 대해 전년비 6.2%로 둔화세 예상했으나 전월비 0.4% 예상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경고. 물가 우려 계속됐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 우려도 다시 주목받으며 장기물 소폭 하락.
- 금일 미국 1월 CPI 발표가 당분간 시장 방향성을 리딩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. 그 외 미국 달러스 연은 및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, 미국 소매판매 지수도 주목할 필요.



## FX & Commodity

	2/13일	1D	1W	(단위: %, \$) YTD
환율	원/달러	1,277.30	1.0%	2.0%
	달러지수	103.28	-0.3%	-0.3%
	달러/유로	1.072	0.4%	0.0%
	위안/달러(역외)	6.82	0.0%	0.3% -1.4%
	엔/달러	132.29	0.7%	-0.3%
	달러/파운드	1.214	0.7%	0.9%
	헤알/달러	5.17	-0.9%	0.4% -2.2%
상품	WTI 근월물(\$)	79.16	-0.7%	6.8% -1.4%
	금 현물(\$)	1,854.34	-0.5%	-0.8%
	구리 3개월물(\$)	8,960.00	1.2%	1.0%

## 원달러 환율 및 홍콩증시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+12.10원 급등한 1,277.30원에 마감. 종가 기준 올해 들어 최고치로 마감.
- 금주 예정된 CPI 경계 심리 만연. 지난 주말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 및 지난해 8-12월 CPI 전월비 상승률 상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.
- 오전 발표된 2월 1-10일 무역적자도 50억 달러를 기록 한 점도 원화 약세에 영향. 그 외 미국의 연이은 비행물 체 격추 보도가 나온 점도 위험 화폐 성향을 부추김.

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-0.3% 하락한 103.28 기록.
-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 일부 되돌려지며 달러는 소폭 하락. 미셀 보우먼 연준 이사 연방기금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.
- 한편 엔화는 신임 총재로 내정된 우에다 가즈오 전 심의위원이 시장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약세 지속.
- 금일 미국 CPI 발표 예정.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전월비 상승률이 확대된다는(+0.1% → +0.4%) 점에서 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. 연준 인사들도 매파적 발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.